보도자료 Press Release

광주지방기상청

배포일시	2018. 3. 23.(금) 11:00 (총 8매)	보도시점	즉 시		
담당부서	기후서비스과	담 당 자	과 장 김 재 영 사무관 김 경 하	전화번호	062-720-0669

3개월 전망(2018년 4월~6월)

[기 온]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

[강수량]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음

□ **(4월)**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높겠으나,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아 쌀쌀할 때가 있겠음.
(월평균기온) 평년보다 높겠음
(월강수량) 평년과 비슷하겠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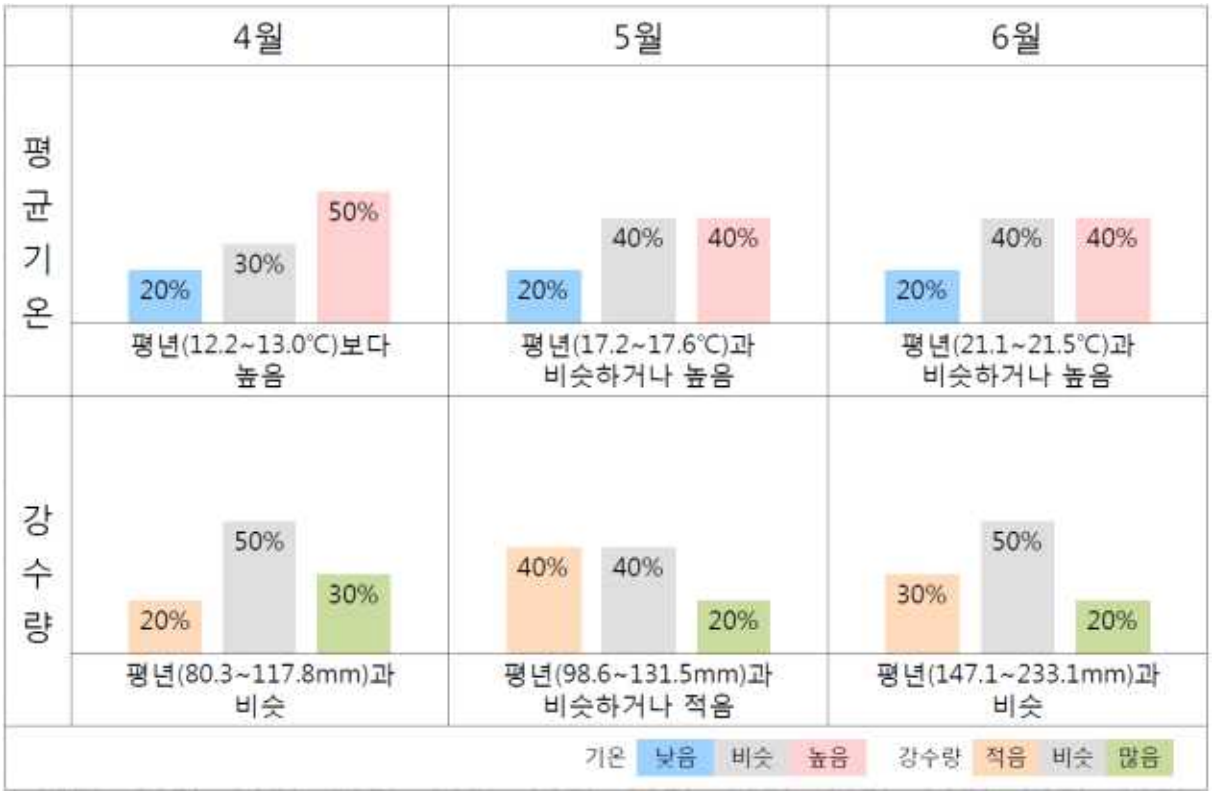
□ **(5월)**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.
(월평균기온)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
(월강수량)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

□ **(6월)**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겠으나, 후반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음.
(월평균기온)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
(월강수량) 평년과 비슷하겠음

□ **(엘니뇨/라니냐)** 엘니뇨·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점차 상승하여 예보기간 동안 중립상태로 회복된 후,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붙임 1	3개월 전망 요약

[광주·전남 3개월 전망(2018년 4월~6월) 요약]



※ 확률예보 해석의 기준

확률(낮음(적음) : 비슷 : 높음(많음))	해 설
높음(많음) 확률이 50%이상	평년보다 높음(많음)
(20:40:40)	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(많음)
비슷 확률이 50%이상	평년과 비슷
(40:30:30) (30:40:30) (30:30:40)	
(40:40:20)	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(적음)
낮음(적음) 확률이 50%이상	평년보다 낮음(적음)

【 알림 】

○ 3개월 전망은 "기상청 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 → 특보·예보 → 3개월 전망"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다음 3개월 전망은 2018년 4월 23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

붙임 2	최근 날씨 동향(1월 1일 ~ 3월 20일)

○ 1월

– 기온은 0.2℃로 평년(1.0℃~-2.0℃)보다 낮았으며, 강수량은 39.8㎜로 평년(18.7㎜~37.2㎜)보다 많았음.

– **[기온]**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컸음. 10~13일에 바이칼 호 부근에 형성된 상층 고기압으로 인해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크게 떨어졌으며, 23일 이후에는 우랄 산맥-카라 해 부근과 베링 해 부근에 상층 고기압이 형성되어 상층 찬 공기가 빠져 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강한 추위가 지속되었음. 특히, 24일에는 광주·전남 평균기온이 -7.1℃로,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음. 반면에, 15~22일에는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높았음.

– **[강수량]**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내려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보였음. 16~17일에 우리나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고, 8~11일에는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과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해기차에 의해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.

○ 2월

– 기온은 1.8℃로 평년(2.3℃~3.7℃)보다 낮았으며, 강수량은 32.1㎜로 평년(30.1㎜~50.4㎜)과 비슷했음.

– **[기온]** 전반에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, 후반에는 주기적인 기온 변화가 나타났음. 1월 후반부터 2월 전반까지 우랄 산맥-카라 해와 베링 해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정체하면서 우리나라로 상층의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어 추운 날이 지속되었음. 후반에는 우랄 산맥 부근의 상층 기압능이 약해지고 베링 해 부근의 상층 기압능도 북미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흐름이 원활해져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였고, 주기적인 기온 변화를 보였음.

– **[강수량]**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으나, 28일에 우리나라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광주·전남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였음. 3~6일, 11~13일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광주·전남지역에 눈이 내렸음. 특히, 28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2월 강수량의 약 86%를 차지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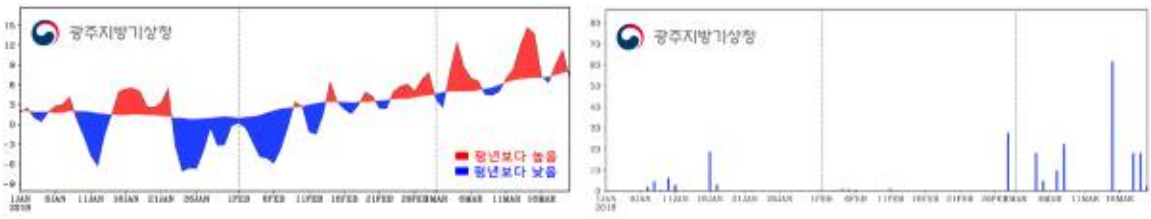
○ **3월 1일 ~ 20일**

– **[기온, 8.0℃]** 이동성 고기압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아 광주·전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음. 대기 중·상층에서는 동서기압계 흐름이 대체로 원활한 가운데, 우리나라를 포함한 몽골-일본-베링해-북미서부로 상층 기압능이 형성됨.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은 주로 우리나라 북동쪽에 편향되어 북서기류에 의한 찬 공기의 유입이 약했음. 대기 하층에서는 찬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빠르게 이동성 고기압으로 약화되거나, 중국 남부에서 대류가 활성화되면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자주 통과하였음.

– **[강수량, 157.5㎜]**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온 날이 많았음. 1일, 4~5일, 7~8일과 18~20일은 남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, 15~16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강수가 기록되었음.

※ 3월 평년비슷범위: 기온 6.6℃~7.4℃, 강수량 64.6㎜~81.4㎜

○ **(최근 3개월, 1.1.~3.20.)** 평균기온은 2.7℃, 강수량은 229.4㎜였음.



최근 3개월 광주·전남 평균기온(왼쪽)과 강수량(오른쪽)의 일변화(2018.1.1.~3.20.)

붙임 3	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(4월~6월)

○ 기온

– 최근 10년(2008년~2017년) 평균기온은 17.6℃로 평년(17.1℃)보다 0.5℃ 높았음.

연도별(1973년~2017년) 광주·전남 평균기온(4~6월)

○ 강수량

– 최근 10년(2008년~2017년) 강수량은 383.6㎜를 기록하였음.

연도별(1973년~2017년) 광주·전남 강수량(4~6월)

○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

기후 요소	단위	4월	5월	6월
평균기온(평년편차)	℃	12.8(+0.2)	18.1(+0.7)	21.8(+0.5)
평균 최고 / 최저 기온	℃	18.4 / 7.6	23.8 / 13.1	26.2 / 18.4
강수량 / 강수일수	㎜ / 일	128.7 / 10.0	118.7 / 8.7	136.2 / 10.1
일조시간	시간	207.4	237.5	154.5
일교차 10℃ 이상 일수	일	16.1	17.4	7.7
황사 현상일수	일	0.5	1.8	0.0

※ 기온, 강수량, 일조시간은 7개 지점(광주, 목포, 여수, 완도, 장흥, 해남, 고흥) 평균, 황사 현상일수는 3개 지점(광주, 목포, 여수) 평균

※ 최근 10년 기간 : 2008년~2017년

※ 평년기간 : 1981년~2010년

붙임 4	최근 10년간의 특이 기상(4월~6월)

○ 고온 현상

– (2017년 6월)

·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최고 5위를 기록하였음.

편차(℃) : **평균 최고기온** +1.1**[1위 1997년 +1.6]**
일최고기온(℃) [6월 극값 2위] : **15일** 여수 31.6, **19일** 해남 32.2

· 후반에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어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었으며,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.

– (2017년 5월)

· 평균기온,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최고 1위, 2위를 기록하였음.

편차(℃) : **평균기온** +1.4, **평균 최고기온** +2.2**,[1위 1978년 +2.7]**
일최고기온(℃) [5월 극값 1위] : 30일 완도 31.9
일최저기온(℃) [5월 극값 1위] : **30일** 여수 19.7, **31일** 완도 19.6

· 우리나라 남쪽 해양으로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었으며,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 동안 강한 일사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.

– (2017년 4월)

· 평균기온, 평균 최고기온,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최고 2위, 1위, 3위를 기록하였음.

편차(℃) : **평균기온** +1.7**[1위 1998년 +2.5]**, **평균 최고기온** +2.0, **평균 최저기온** +1.5**[1위 1998년 +3.8]**
일최고기온(℃) [4월 극값 1위] : **16일** 광주 30.4

· 이동성 고기압과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.

– (2016년 6월)

·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최고 2위 기록하였음.

편차(℃) : **평균 최저기온** +1.5**[1위 2013년 +1.7]**

·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음.

– (2016년 4월)

· 평균기온, 평균 최고기온,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이래 각각 최고 3위, 5위, 2위를 기록하였음.

편차(℃) : **평균기온** +1.6**[1위 1998년 +2.5], 평균 최고기온** +1.3**[1위 2017년 +2.0]**, **평균 최저기온** +2.2**[1위 1998년 +3.8]**

·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.

– (2014년 5월 하순)

· 평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.

편차(℃) : **평균기온** +1.9

· 중순부터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고, 낮에는 강한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.

– (2012년 5월)

· 평균기온, 평균 최고기온,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최고 2위, 3위, 1위를 기록하였음.

편차(℃) : **평균기온** +1.3**[1위 2017년 +1.4]**, **평균 최고기온** +1.7**[1위 1978년 +2.7]**, **평균 최저기온** +1.5

· 고온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음.

○ 저온 현상

– (2014년 5월 3일~9일)

·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 평균기온,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최저 4위, 3위를 기록함.

편차(℃) : **평균기온** –1.8**[1위 1976년 –2.7]**, **평균 최저기온** –3.0**[1위 1976년 –3.6]**

· 캄차카반도 부근에서 발달한 상층 기압능의 영향으로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상층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.

– (2014년 4월 4일~6일)

·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후 각각 최저 3위, 2위를 기록함.

편차(℃) : **평균기온** –2.6**[1위 1996년 -3.5]**, **평균 최고기온** –3.4**[1위 1996년 –3.8]**

· 캄차카반도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발달하여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상층 한기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쌀쌀한 날씨가 나타났음.

– (2013년 4월)

· 평균기온, 평균 최고기온,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최저 3위, 3위, 2위를 기록하였음.

편차(℃) : **평균기온** –1.4**[1위 1996년 –2.4]**, **평균 최고기온** –1.6**[1위 2010년 –2.7]**, **평균 최저기온** –1.6 **[1위 1996년 -2.7]**

· 상순 후반부터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에 자주 유입되어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었음.

– (2010년 4월)

·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,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최저 2위, 1위, 3위를 기록하였음.

편차(℃) : **평균기온** –1.9**[1위 1996년 –2.4]**, **평균 최고기온** –2.7, **평균 최저기온** –1.4[**1위 1996년 –2.7]**

·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어 한기유입이 잦았고, 남쪽으로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며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았음.
· 잦은 강수와 저온으로 농작물의 생육이 부진하였음.

– (2008년 5월 중순)
· 평균기온,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았음.
편차(℃) : **평균기온** –2.0**[1위 1981년 –2.1], 평균 최저기온** –2.4**[1위 1981년 –2.5]**
·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는 가운데, 상층의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.

○ 많은 비

– (2015년 4월)
· 평균 강수일수(16.6일)가 관측 이래 가장 많았음.
· 전반에는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, 중반에는 저기압의 이동속도가 느려 비오는 날이 많았고, 후반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.

– (2010년 5월 18일)
· 기압골이 통과하는 가운데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.
일강수량(㎜) : 보성군 189.5

○ 건조 및 가뭄

– (2017년 5월)
· 강수량이 28.0㎜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었으며, 강수일수도 5.6일로 최소 2위를 기록하였음.
일강수량(㎜) : 28.0**[1위 1978년 5.2], 강수일수(일)** : 5.6**[1위 1978년 2.3]**

○ 황사

– (2016년 4월)
· 9일~10일, 23일~25일에 황사가 관측되었으며, 특히 23일~24일에 400㎍/㎥ 안팎의 황사가 나타났음.
최고농도(시간평균, ㎍/㎥) : 24일 흑산도 441
· 몽골과 내몽골 고원 및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음.